

#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성소수자는 이성애만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그와 다른 성적체성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성소수자로 불리고 있으며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거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목차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005 들어가며

### 009 I. 성이란 무엇일까?

031 - 인권교육 프로그램 1 : 남자가 하는 것, 여자가 하는 것

033 - 인권교육 프로그램 2 : 정상·비정상 경계와 기준에 대해 물음표 던지기

### 041 II. 성소수자와 인권 톨아보기 1 - 동성애 혐오와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해

057 - 인권교육 프로그램 1 : 우리 반에서 금지

059 - 인권교육 프로그램 2 : 나에게 소중한 다섯 가지

### 067 III. 성소수자와 인권 톨아보기 2 - 다양한 가족구성과 동성결혼

085 - 인권교육 프로그램 1 : 다양함과 평등함이 숨 쉬는 별별 가족 상상하기

### 095 IV. 변화와 실천 : 무지개 책갈피 만들기

### 107 V. 읽을거리

109 - 열린 상담을 위한 10가지 태도, 이렇게 상담하세요!

113 -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나에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다면?!

117 - 꾸러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핫이슈 간략히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들어가며





##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가치에 던지는 물음!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했을 때만해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외부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했던 교육내용을 모아 목차를 만들고 살을 덧붙이면 그럴듯한 자료 하나쯤은 쉽게 발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뭐지? 라는 원초적 물음 앞에 자료제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강연자 1명에게 모든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목표와 가치,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인권교육의 전부일까라는 의문이 들자 짜깁기 자료가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가치와 목표를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교육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교육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워크숍 과정에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2~3시간 정도 배치되기도 합니다. 비록 상담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강연의뢰가 올 때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싶어 거절해본적도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문제를 다루는 것과 달리 성 이슈는 반차별 인권교육에서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인권교육은 모두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자에서조차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비껴가고 싶을 주제로 취급받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주제고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가들도 나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교육 참여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된 대답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꾸러미 자료를 준비하며 인권교육 교사모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보급되면 너무 좋겠지만 과연 누가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교육현장 분위기가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사연수나 다양한 인권교육 워크숍에서 이 자료가 활용되면 좋겠다

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한번쯤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교사분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시작이고 바로 이 자료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교육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의 척박한 삶을 소개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당위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성별규정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있고 정상과 비정상 사이 존재하는 모호한 경계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옳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2~3시간의 교육으로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갖게 되진 못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기보다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가치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가진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자료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자료를 활용해 인권교육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늘 함께하겠습니다.

※ 이 자료는 <http://www.lgbtpride.or.kr/youth>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12.31.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율, 이경, 상근, 오리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I. 성이란 무엇일까?





## 들어가며

성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고 트랜스젠더는 이래.”라는 내용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남성이나 여성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이성애자니까 괜찮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비정상이지만 불쌍해.”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 왜 모두가 평등할 수는 없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성소수자가 겪는 억압과 차별들이 우리 모두가 겪는 억압과 차별이라는 지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를 통해 우리가 말하는 남자/여자에게도 이미 다양한 남성/여성 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가장 남자답고 아닌지가 중요하고, 여성스럽다는 것이 나이나 외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통해서는 친밀한 관계, 성적인 관계는 무엇일지 자신의 경험으로 정의 내려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를 “그냥 당연히” 이성애자로 가정하지 말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바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네 번째 자료에서 “이성애”가 무엇인지 질문해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의 이성애는 권장되거나 금지되는지 생각해봅니다. 이성애 자체를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한번쯤 거리 두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는 이 사회가 이루고 있는 위계구조를 살펴봅니다. 돈, 나이, 장애여부, 외모, 학벌, 피부색 등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봅니다. 이를 통해 이 사회가 성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고 무엇을 ‘정상’으로 만들고 권장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자료에서 성을 이해할 때 주로 쓰이는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이어 일곱 번째 자료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정체성을 통해 동성애자,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에서 “바뀔 수 있나?”는 질문이 가진 맥락을 설명하고 아홉 번째 자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다루며 마지막 자료에서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냥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1 누가 남자일까요?



사진을 보면서 “누가 남자인가요? 누가 남자로 느껴지나요? 누가 가장 남자다운가요? 왜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 중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사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필요한 내용 : 임신한 남성의 사진은 토마스 비티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아내가 임신을 못하자 대신 임신하여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홍석천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연예인, 우측하단의 사진은 7·9·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김옥선 전 의원. 일제 때 징용 가서 죽은 오빠를 어머니가 그리워하자 1950년대에 처음 남장을 했고, 열아홉에 시작한 사회사업과 정치를 위해서 평생 남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우측 상단은 홈리스(노숙인) 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가 남자인가요? 누가 가장 남자다운가요? 왜 그렇죠? 자신이 남자답거나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남자 혹은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나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남자로 여겨지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되기 위해 하는 노력들(예를 들어 울지 않는다,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 바지만 입는다.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 2 누가 여자일까요?



사진을 보고 “누가 여자일까요? 누가 여자로 느껴지나요? 누가 가장 여성스럽나요? 왜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줌마나 장애여성과는 뭐가 다른 건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사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필요한 내용: 가운데에서 우측 사진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연기자 하리수, 그 아래사진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 장애를 가진 예술가 앨리슨 래퍼.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중 누가 여자일까요? 누가 여자로 느껴지나요? 누가 가장 여성스럽나요? 왜 그렇죠? 자신이 여성스럽거나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자 혹은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나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 “여자가 된 거”같은지, 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예를 들어 제모를 한다. 다리를 벌리고 앉지 않는다.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 3 몇 가지 질문들 !!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와 손잡거나 껴안거나 뽀뽀를 한 적이 있나요?  
 친구가 다른 애들이랑 더 친해져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  
 친구와 포르노를 같이 본 적이 있나요?  
 친구와 성적인 부위를 만지면서 장난친 적이 있나요?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이성에게 자꾸 관심이 간다거나 끌린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언제였나요?  
 동성에게 자꾸 관심이 간다거나 끌린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언제였나요?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 봅니다. 교육 참여자들의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줍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다양한 관계와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성애/동성애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 성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각자의 경험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살펴보도록 유도합니다. 떠오르는 경험이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에 친구끼리 그런 경험 한 번씩은 해. 다 칠없는 시기의 장난이지.”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직접 답하도록 하는 것은 공간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혐오가 강한 곳이라면 누군가의 경험이 놀림거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각자가 생각해보고 마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이성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이성애는 무엇일까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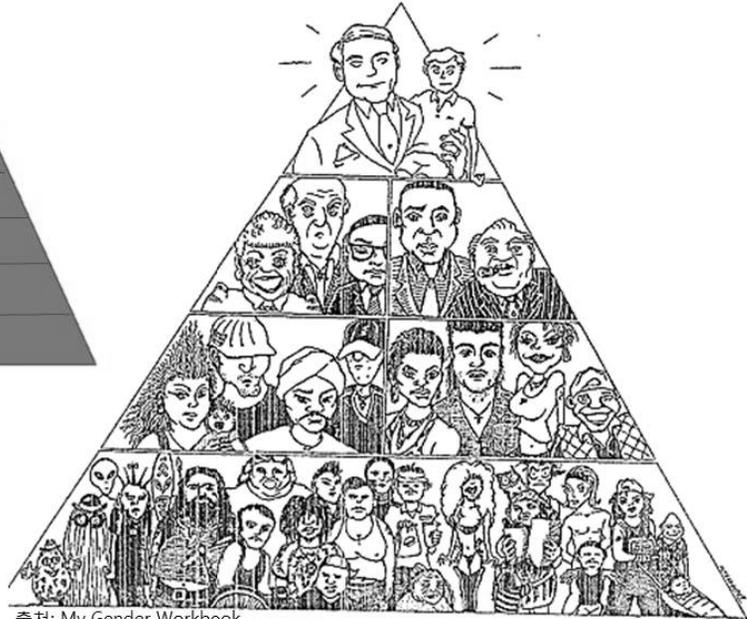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자료에 있던 어떤 남자와 두 번째 자료에 있던 어떤 여자와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이성애가 가장 권장될까요? 어떤 이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베프일까요, 연애일까요, 섹스일까요, 결혼일까요? 이 모두를 이야기하나요?

완벽한 커플로 검색하니 나온 사진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이성애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이성애조차도 특정한 이성애만이 권장되고 상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이성애는 금지되곤 하지요. 장애인의 이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이 이성애(섹스)하는 것과 남성이 이성애(섹스)하는 것이 다르게 취급되기도 하지요.

## 5 위계질서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처: My Gender Workbook  
Kate Barnstein

The Gender/Identity/Power Pyramid

피라미드 그림을 설명합니다.

“피라미드 그림에서 꼭대기는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놓여요.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는 학교 서열 피라미드예요. 관리자는 교장 교감을 말하고요. 맨 밑에 가서 왕따가 있지요. 대충 이해가 가지요?”

오른쪽 피라미드는 이 사회에서 누가 꼭대기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그려놓은 것이에요. 맨 위는 돈 많고, 잘생기고, 좋은 학벌, 집안, 직장, 완벽한 여자 애인이 있는 젊은 남자들이겠지요. 반면에 맨 밑에는 어리고, 가난하고, 뚱뚱하고, 장애를 가지고, 괴상하고, 변태 같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지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공부도 잘하고, 잘 놀고, 얼짱에 인기까지 많은

사람이지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요? 공부는 못하는데 잘 노는 친구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것 같나요? 공부는 잘하는데 못 꾸미고 안 이쁜 친구는 어디쯤 위치해있는 것 같나요? 그러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는 어디쯤 위치해있는 것 같나요? 여성스러운 남자, 남자 같은 여자는 어디쯤 위치해있는 것 같나요? 그럼 여러분은 피라미드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것 같나요?”

피라미드 그림을 통해 이 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이들이 비정상으로 내 몰리는지, 자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밑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 하거나 괴롭힘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6 네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안젤리나 졸리(양성애자) / 홍석천(동성애자) / 고수(이성애자?) / 하리수(트랜스젠더)

사진에 나온 연예인들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을 나누는 여러 방식이 있지요. 남자/여자, 한국인/외국인, 장애인/비장애인, 부자/가난한 사람 이성애자/동성애자 등등.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다른점이 있나볼까요?”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무엇이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 동성애자: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 이성애자: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동성, 이성 관계없이 사람에 따라 사랑하거나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염색체, 호르몬, 성기관 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남성, 여성, 혹은 다른 무엇)이 다르다고 느끼거나, 불일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무성애자처럼 이성애를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성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서 이해를 돕습니다.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증에 남자라고 표시된 사람은 누군가요?” (답: 홍석천, 교수, 하리수)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답: 안젤리나 졸리, 하리수)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답: 안젤리나 졸리, 교수)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답: 홍석천, 안젤리나 졸리, 하리수)

\* 사진에서 교수를 이성애자로 적은 것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교수가 자기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한 적이 있나?”, “왜 사람들은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지 않나?”, “그럼 커밍아웃하는 사람만 성정체성을 알 수 있나?” 등등.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해야만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현실을 꼬집을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를 받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를 함부로 이성애자라고 가정하기 힘들다는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7 성을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들

- **성별정체성** :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신체의 외형적 특징과 무관하게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 또 다른 어떤 성/성별/젠더로 인식하고 정체화하는 과정.
- **성적지향** : 여성, 남성, 양성애와 같은 어떤 성별의 상대에게 애정적, 정서적, 성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방향성.
- **성정체성** : 자신이 어떤 성적지향을 지니고 있고 어떤 성별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주체적으로 확신하고 결정하는 것.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처럼 특정한 정체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신체적인/정신적인 건강을 어떻게 추구할 것 인가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을 남자 혹은 여자로 생각하는지를 말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나의 성별정체성은 남자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신체 구조나 외형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과 똑같은 때는 비트랜스젠더(보통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다르면 트랜스젠더라고 하지요”

“성적지향은 여자에게 끌리는지 남자에게 끌리는지 남녀에 상관없이 끌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에게 끌리면 동성애자, 이성에게 끌리면 이성애자, 남녀관계없이 끌리면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나의 성적지향은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모든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듯 그건 동성애자 양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정체성은 자신을 뭐라고 할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섹스를 하는 남자가 꼭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붙이고 말할 수 있을 때 성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성정체성을 물어보면 “난 트랜스젠더야.” 혹은 “난 레즈비언이야.”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 8 년 어떤 '이유'로 \_\_\_\_가 되었니?



이쯤 되면 나오는 질문들이 있지요?

“왜 동성애자가 되나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성정체성이 바뀌기도 하나요?” 등등.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먼저 떠오르는 걸까요?

“왜 이성애자가 되나요?”, “이성애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떠오르지 않을까요?

성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는 죄악, 비정상, 정신병, 변태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고요. 성소수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지요.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천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요. 동성애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자가 될 거라면서, 반대로 많은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이 자신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지요. 누가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받은 걸 선택

하나고요. 교육 때문이라면 모두가 이성애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요.

일단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남성/여성 이라고 생각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나요?”

“계기가 있나요?”,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성에게 끌렸나요?”, “언제부터 끌렸나요?”, “그게 교육 때문인 거 같나  
요 본능 때문인 거 같나요?”

성정체성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놀림받거나 괴롭힘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차별받  
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만 정상이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9 트랜스젠더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여러분들이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보험증서 등에 다른 성별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 교육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여러 서류나 증서에 본인의 성별과 다른 성별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자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 취업을 할 때 면접관의 표정은 어떨까요? 관공서를 방문할 때 공무원들의 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의 태도나 입출국할 때 공항직원의 태도가 어떤 지 이야기 나눕니다. 그 외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적어보고 그 상황에서의 대응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 행정적인 실수가 아닌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일 경우 앞서 이야기 나눈 모든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생각해봅니다.

## 읽을거리 ▶ 성별변경은 기본!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 혹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려는 이들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신체적 전환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 등 의학적 조치와 무관하게 법률적, 사회적, 의학적으로 부여된 성별을 거부하고 그와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넓은 의미의 트랜스젠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주민등록상의 성별표기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관공서를 들어갈 때, 취직을 할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생계마저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2006년 6월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이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 8월에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폐지되면서 병역미필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보다 완화된 지침 규정이지만 여전히 혼인사실여부를 묻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성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지침에 의해 트랜스젠더들의 성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발행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과 취업상담 서비스를 성전환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와 노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인데, 아직까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불안전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직활동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성적 덕목과 남성적 특징을 강제하는 학교교육의 끔찍함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학력도 낮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과 자신의 성별정체성 사이에서 충돌은 계속 생겨나고 자신을 늘 숨겨야 하며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긴장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불쾌한 시선 때문에 나를 버려야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나와외의 싸움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한 성별변경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은 불가피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2,130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해야 경우도 많습니다. 호르몬 주사의 비용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성전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이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서 호적상 성별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전제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을 긍정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http://transroadmap.net>

## 10 내 모습으로 살기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합니다. 커밍아웃한 유명한 연예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의 기사들에서 성전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편견과 차별로 드러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위 사진) 매트릭스를 만든 세계적인 감독 워쇼스키 형제가 이젠 워쇼스키 남매다. 지난 30일 호주 매체 디 오스트레일리언은 워쇼스키 형제의 형인 래리 워쇼스키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래리 워쇼스키 감독은 10여 년간 성전환을 위해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우측 위 사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두 명의 자식을 낳아 화제가 됐던 토마스 비티. 아내가 임신을 못하자 자신이 임신을 하였다. 이미 두 자녀가 있는 토마스는 첫째는 딸 아이를 2008년도에 출산을 했고 그 이듬해인 2009년도에는 아들을 출산했다. 올해로 셋째 아기를 출산하는 그는 아기를 임신한 기간 중 남성 호르몬을 맞지 않는 등 아기에게 해가 될 만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임신과 관련해 자신의 정체성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며 친자식을 가질 권리는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좌측 아랫 사진) 남성이던 경찰관이 성전환 후 여경이 되어서 자신의 근무지로 복귀했다고 한다. 영국의 노스웨일즈 해변에서 6년이 넘도록 근무하다가 2년전 유급휴가를 신청한 후 태국으로 가서 1만 파운드(우리 돈 약 1800만원)를 주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름도 아담에서 “알렉산드라”로 개명했다.

알렉산드라는 현재 여경의 신분으로 여성시민의 몸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은 상태이고 생활도 여경들과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 알렉산드라는 앞으로 수술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노스웨일즈 경찰 부국장은 개인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며 지원한다고 하면서 유급휴가를 잘 챙겨주겠다고 했다.

알렉산드라는 주민들이 자신의 현재 정체성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남자경찰로 근무했을 때는 존경을 많이 받았으니 지금도 존경받는 여경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우측 아랫 사진) 독일의 여성 장대높이뛰기 선수 부시바움이 2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부시바움은 1999년 유럽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독일의 기대주로 등극하면서 2004년에는 유럽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유능한 육상선수로서 도드라진 활동을 하였으나 연속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선수생활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고 또한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을 겪으면서 결국 대표팀을 은퇴하고 2008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름도 ‘발리안’ 이란 멋있는 남자이름으로 개명하였다.

## ● 교육을 마무리하며

인간의 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 지문이 다르듯이 어떤 성별로 살아가고,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되고 싶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어떤 성적상상을 꿈꾸는지 모두가 다릅니다. 이걸 단순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처럼 몇 개로 구분해 놓은 게 이상한 것이지요.

이제는 어떤 사람을 너무 쉽게 이성애자나 비트랜스젠더로 가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다양하다는 생각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많은 성정체성의 이름이 너무 어렵다면 몰라도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선불리 짐작하지 말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기억과 경험들을 통해 돌아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본 피라미드 맨 꼭대기의 완벽한 이성애 커플, 완벽한 남자, 여자처럼 모두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꼭대기에 있지 않아도 서로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 인권교육 프로그램 1. 남자가 하는 것, 여자가 하는 것

〈주제〉

1. 남성이 하는 것과 여성이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2. 모두가 동의하는 고정된 성역할이 있는 건지 고민해보기.
3. 그러한 성역할이 왜 필요한 건지 이야기해보기.

발표 진행자 :

### ● 대상 인원

- 대상인원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 ● 준비물

- 여러 색깔의 펜, 체크리스트

### ● 진행방법

- PPT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인물을 나눠줘서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도록 한다.
- 체크리스트

남자	여자	
		서서 오줌을 본다.
		핑크색 옷을 입는다.
		면도를 한다.
		귀걸이(피어싱)를 한다.
		섹스할 때 콘돔을 챙긴다.
		소녀시대 팬클럽이다.
		온라인게임을 자주 한다.
		남자 연예인을 보고 멋있다고 느낀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
		얼굴에 점을 빼고 싶다.
		여름에 외출할 때는 썬크림을 꼭 발라준다.
		노출이 많은 옷을 즐겨입는다.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다.

남자	여자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
		쉬는 시간에 매점을 향해 달려간다.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야동을 본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고백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쑥스럽다.
		특별히 좋아하는 향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난다.
		군대에 간다.
		직접 초콜릿이나 사탕을 만들어서 애인에게 선물해준다.

\*항목은 진행자가 교육받는 이들을 고려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각자 남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되면 남자 칸에,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되면 여자 칸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둘 다 체크해도 됩니다.
- ② 또 다른 색깔의 펜으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나이든 사람을 한명 정해서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체크했겠지’라고 짐작되는 것을 체크합니다.
- ③ 다른 색깔의 펜으로 내가 해본 것들에 체크해 봅니다.
- ④ 자신이 체크한 것들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친구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봅니다.
- ⑤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도 이야기해봅니다.

- 정리

남자가 하는 것과 여자가 하는 것의 구분이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함으로써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성역할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남자는 미용실에 가면 안 되고 이용원에만 갔었다 등)

그러한 성역할 고정관념들이 왜 필요한지 질문한다. “넌 남자니까, 넌 여자니까 이 행동을 하면 안돼”, “무슨 여자가, 무슨 남자가 그래.” 같은 말들로 기분 나빴던 일들을 떠올려볼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인권교육 프로그램

2. 정상·비정상 경계와 기준에 대해 물음표 던지기  
- 나만의 소수성 찾기 -

〈주제〉

1. '정상'과 '비정상' 사이 존재하는 모호한 경계와 기준에 대해 물음 갖기
2.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차이차별'을 소수성과 다양성 키워드로 이해하기

발표 진행자 :

## ● 대상 인원

- 모둠 별 참여형 프로그램. 20명 내외.

## ● 준비물

- 전지, 테이프, 포스트잇(개인 당 5장 이상씩), 사인펜

## ● 진행방법

- 교육 시작 전 모둠을 나누고 한 모둠 당 4~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적어 놓는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7조(차별금지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

- 열거된 차별금지사유가 많은 만큼 교육 참여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외모, 성적, 징계 등 학교와 연관된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정상,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좋고 싫음 등의 표현을 써서 변경할 수 있다.

- 진행 순서 :

순서	시간	내용	준비물
시작 전		▶ 교육 시작 전 4~5명 규모의 모둠을 나눈다. 개인당 포스트잇 5장 이상씩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차별금지사유를 전지에 적어두고 칠판 또는 벽면에 붙여놓는다.	전지 테이프
도입	10분	▶ 교육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전지에 적힌 차별금지사유를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눈다. 진행자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본 프로그램	60분	▶ 각 모둠마다 3개 정도의 차별금지사유를 선택한다.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포스트잇에 정리해 전지에 붙인다. ▶ 교육진행자는 포스트잇에 정리된 '정상' 기준을 상기시켜 주면서 각 차별금지사유마다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개인 사례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다.	포스트잇 사인펜
정리	20분	▶ 정상과 비정상 구분의 무의미함과 자신의 소수성을 찾아 보는 등 그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눈다.	

<도입 : 진행 설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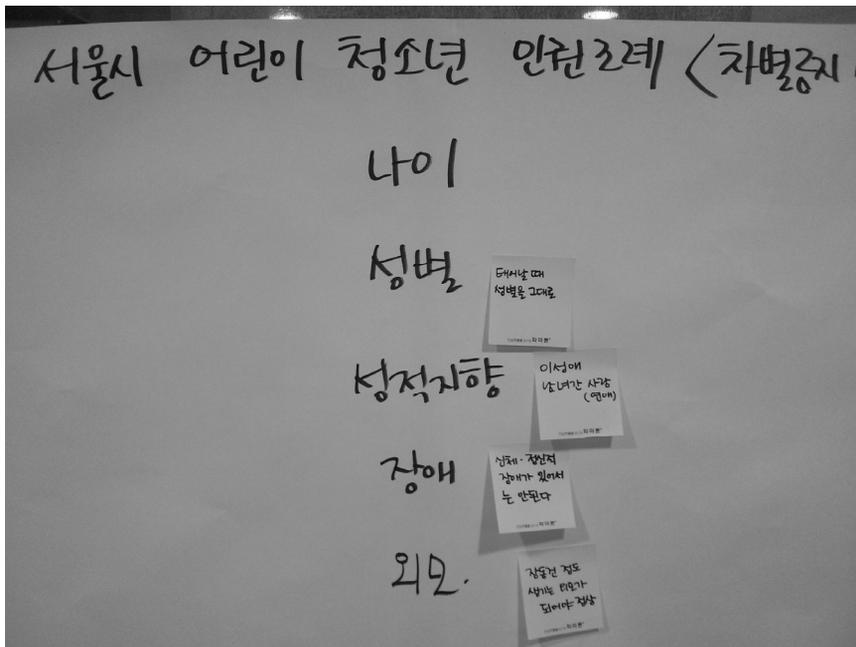
- ① 4~5명 규모의 모둠을 나눈다.
- ②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인당 포스트잇이 최소 5장 이상씩 돌아갈 수 있게 준비물을 모둠별로 나눠준다.
- ③ 전지에 적힌 차별금지사유의 의미를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해준다.
- ④ 차별금지법사유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 조례를 소개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현재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차별금지사유 예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 ⑤ 진행자가 먼저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를 선택해 '정상' 기준에 대해 포스트잇에 적고 전지에 직접 붙이며 시범을 보여 교육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본 프로그램〉

- ① 각 모둠마다 차별금지사유 3~4개 선택한다. 진행자는 모둠이 선택한 차별금지사유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 ② 모둠별로 선택한 차별금지사유마다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포스트잇에 적는다. 참여자들이 가급적 1개 이상씩 적을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기준은 모두 적어놓는다.

예를 들어 모둠 1조에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선택했다면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기준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는다. 〈성적지향〉으로는 〈이성애〉 〈남녀 간 연애〉 〈남녀 간 결혼〉 등이 정상기준을 나올 수 있겠고 〈경제적 지위〉로는 〈대기업 정규직〉 〈연봉 3,000만원 이상〉 〈30평 규모의 아파트 소유〉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③ 전지에 적혀있는 차별금지사유마다 해당되는 포스트잇을 나란히 붙인다.



- ④ 모두가 작성한 포스트잇을 모두 전지에 붙였다면 진행자는 각 차별금지사유마다 적절한 포스트잇 내용을 읽어준다. 포스트잇에 작성된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나머지 모둠에게 동의를 구하고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더 적어놓는다. 누군가에게는 동의되는 ‘정상’ 기준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동의되지 않을 수 있다.
- ⑤ 교육진행자는 차별금지사유마다 교육 참여자들이 작성한 ‘정상’ 기준에 대해 설명해준다.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법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견고한 정상기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⑥ 다음 단계로 교육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모둠에서 작성한 ‘정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적지향>에 대한 토론에서 참여자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거나 이성애자라도 결혼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정상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경제적 지위>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월세를 빼듯하게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참여가 있다면 자신이 <정상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단 사례를 공유하기 전 참여자들과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정상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의 사례를 개인의 결핍과 부족한 점으로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⑦ 대부분 참여자들이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한 가지 이상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성적지향>에서는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지위>에서는 <정상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 <정리>

- 정상의 반대말은 비정상일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묻고, 어떤 판단근거와 경험을 가지고 정상기준을 갖게 되었는지 묻는다. 또 같은

차별금지사유에서도 각자 생각하는 정상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성을 요구받고 ‘정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으로 여겨지거나 열등, 결핍된 조건으로 생각하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장애, 성별, 성적지향, 피부색 등은 자신만의 ‘소수성’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가난이 곧 비정상으로 여겨지지 않듯 <경제적 지위>와 같은 차별금지사유는 열등함, 부족함, 결핍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돼야 보통이지!’라는 능력위주의 기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표준화된 기준은 아니다.
- 이 교육의 목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받는 ‘정상’ 기준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사회조건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입장에서 구분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상, 비정상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읽을거리 ▶ 누가 소수자일까요?

### ✓ 누가 소수자일까요?

여러분들은 다수자인가요? 소수자인가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소수자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소수와 다수를 규정하는 수많은 기준은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어떨 때는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호환되며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소수자일 수 있습니다.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 받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소수자라는 단어가 ‘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자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다른가?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인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강자들이 ‘너희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기준들

아래 기준의 모든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해야만 소수자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닌 정체성과 특징, 혹은 존재 자체로 인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거

나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 **식별 가능성** : 소수자들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신체적 특징으로 식별되며, 일본에 살면서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학생들이나 유럽에서 히잡이나 차도르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은 문화적 특징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물론 성소수자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식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소수자들과 다른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권력의 열세** :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권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소수자들은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쳐져 있고 그럴만한 기회도 빈번히 박탈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수자들이 지닌 소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제됨에 따라, 분배의 문제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에서도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3. **차별적 대우** : 소수자는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편견은 지배집단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편하게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내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거나,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주의와 결혼제도를 견고히 하려는 것, 또는 아프리카에서 독재자들이 민중의 분노를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리려는 것들이 편견과 차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4. **집단의식** : 누군가 위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더라도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 성원이라는 집단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약자로서의 개인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소수자라는 말은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으며 일어서는 자력화(임파워먼트)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은 다수자인가요? 소수자인가요?

노숙인은 사회적 약자인가요, 소수자인가요?

‘소수성’은 고정 불변의 것인가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성애 차별은 반대할 수 있나요?

\* 이 글은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라는 청소년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고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소수자와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므로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출처 : 박경태 지음, 200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Ⅱ 성소수자와 인권 톺아보기 1.

동성애 혐오와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해





##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에는?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들의 조례로,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교육청이 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당연히 차별받지 말아야 할 이유들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 의해서도 이런 차별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인데 어째서 조례까지 필요한 걸까요? 그건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언제나 학교생활이나 공부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정말로 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존재일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건 누구일까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부족의 원인은 사회일까요, 개인일까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청소년은 ‘성숙한’ 존재가 될까요?

## 2 청소년 성소수자는 누구일까?



“동성애는 인간의 몸 구조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행위”  
- 김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동방의 순수한 민족인데, 동성애를 인정해서 에이즈를 확산시켜서 파국으로 내몰려고 한다. 학생들이 에이즈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를 왜 학교에서 인정해줘야 하느냐?”  
- 김덕영 서울시 의원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 출산, 낙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나온 반박 논리는 ‘성은 청소년에게 이르며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보수적이고 법이 규제를 할지라도 이미 청소년들은 성에 있어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sup>1)</sup> ‘2010년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평균 성관계 시작 시기는 15.4세이며, 조사인원 2,894명 중 208명(7.3%)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208명 중 10명(4.9%)은 첫 성관계를 동성과 맺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 논리에는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전염시킨다’는 명목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동성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정체성에 관련된 다양한 맥락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흔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도만을 떠올립니다. 생식 불가능, 기독교 성경, 사회적 통념 등을 들며 성소수자는 ‘비정상’이라고 낙인찍고,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는 잠깐 혼란을 겪거나 곧 이성애자로 돌아와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른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불인정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는 없는 존재,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만 취급됩니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곳에서 성문화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성정체성과 섹스, 피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나누고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청소년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는 20살이 되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1) 출처 :

[http://www.prolife.or.kr/bbs/board.php?bo\\_table=abortion\\_3&wr\\_id=6&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http://www.prolife.or.kr/bbs/board.php?bo_table=abortion_3&wr_id=6&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

### 3 **야오이, 콘돔은 청소년 접근불가?!**



콘돔, 야오이 검색 불가?

2003년까지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규제받는 단어였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동성애자 인터넷 웹사이트 일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결과로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 차별조항은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져 2004년 삭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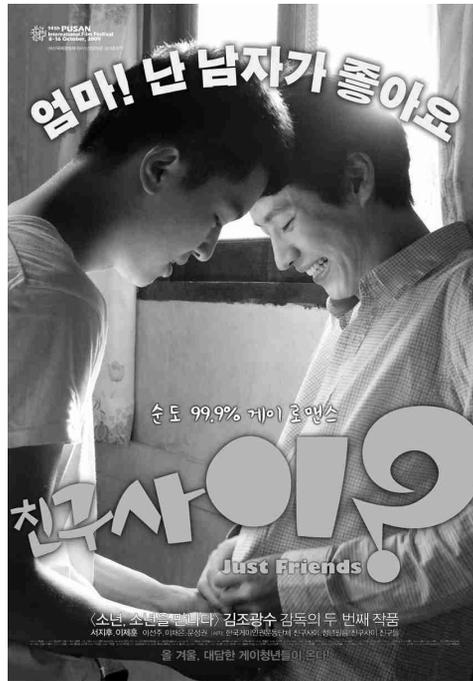
그러나 미소년 남성들 간의 사랑을 다룬 야오이 장르는 여전히 청소년에게는 검색 불가입니다. 또한 피임에 관해서는 필수적인 콘돔도 검색 불가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금지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다룬 장르는 금지하고, 성교육과 실제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콘돔도 금지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다면 성은 더욱 왜곡되고 필요한 지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2009년 바이엘헬스케어사가 세계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68%가 ‘피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해 조사국가 중 피임의식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2)</sup> 이렇게 필수로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면 왜곡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집니다.

---

2)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4/2009092400647.html](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4/2009092400647.html)

## 4 영화 <친구사이?> 논란



청소년유해매체물 vs 성정체성 성찰 제공하는 교육적 영화

“‘친구사이?’에 남성끼리 목욕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 중학생이 이와 같은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게 좋아지고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청소년들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영화”

- 이광범 부장판사의 판결문 中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친구사이?’는 게이 커플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개봉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를 판정받았던 ‘친구사이?’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이 호기심에 이런 걸 접하면 따라하게 되어서 결국 전염된다는 논리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제공한다는 논리가 맞았죠. 2010년에 법원에서 청소년관람가 판정을 받았지만 2012년 말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성애자 청소년은 이성애 매체만 보고 자라서 이성애자가 된 것일까요? 청소년 본인들도 무엇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혹은 자연스럽게 이성이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동성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요. 또한 그 논리대로면 이성애만을 다루는 매체를 보고 자란 청소년은 비이성애자가 될 수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상, 미성숙, 자기결정권 박탈 등 한국 사회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제대로 긍정할 수도 없게 만들고, 스스로 찾아 나서게 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다른 성적체성’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청소년 스스로조차도 ‘청소년은 미성숙해’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중억압 속에서 시달리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 5 호모포비아(Homophobia)?

-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과 비합리적 혐오감
- 때로는 고정관념으로 나타난다.  
미숙한, 부도덕한, 비자연적인, 불법인, 정신병적인  
섹스만 생각하는, 분노에 찬, 과잉공격적인,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 흔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며 증오범죄로 불린다.  
따돌림, 구타, 협박, 성폭력, 모욕감 주기, 욕설, 자살을 포함한 살인

**사회로부터 누군가를 “적절하게” 밀어내기 위한 혹은 희생양 삼기의 좋은 핑계거리**

호모포비아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비합리적인 혐오감을 갖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거부감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호모포비즘은 그러한 거부감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합리적으로 거부하는 폭력입니다.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이 성소수자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나요? 친구나 뉴스로부터 들었나요? 자신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커밍아웃을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놀림받거나 차별받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호모포비아라면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한 배척은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함께 체크해볼까요? 나도 혹시 호모포비아?>**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공포증)는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적인 배경 없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편견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 혐오증이 깊어지면 혐오에 기반 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신도 혹시 호모포비아인가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하나라도 표시를 하셨다면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나는 동성애자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 ◆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 나는 동성애자로부터 프러포즈를 받는다면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 ◆ 만약 길거리에서 동성 간의 애정표현을 본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 ◆ 내 가족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 ◆ 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 동성애자는 교사나 군인같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 학교 성교육에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언론에서 접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 ◆ 나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나 행사가 붙은 선전물을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제거하고 싶다.

## 6 동성애 혐오와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같은 반의 한 여자아이가 아웃팅을 당했어요. 그때 몇몇 아이들이 그 여자애를 폭행 했지요. … 그 아이가 폭행당한 사실을 학교 선생님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유도 알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뒤 그 애는 한참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자퇴를 했어요.”

- 2010년 / 모 고등학교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학교에서 어쩌다 보니 아웃팅을 당했는데 그 소문이 난 뒤로 뭔가 약간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게이여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고 이제는 엄청난 악소문들 까지 퍼져 버렸습니다. … (축제 때) 저녁 시간에 강당에서 불 끄고 공연을 할 때 칼로 찌를 거다’란 소리를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중에 들었습니다.”

- 2009년 / 모 고등학교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하는 행동이 여성스러워서 호모새끼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악질적인 학교 애들이 저만 지나가면 복도에서 양 옆으로 짝 갈라져서 저를 피하고, 뒤에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상을 엮고 그랬어요.”

- 2007년 / 모 고등학교 / 동성애자인권연대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은 차별,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대중매체도 ‘동성애자는 이상하다’고만 하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스스로를 긍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다른 청소년들도 당연히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익숙해집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 일어났던 혐오와 차별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러한 혐오는 꼭 ‘성정체성’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남자 같이 행동하는 여자는 선머슴 같다고 하고, 여자 같이 행동하는 남자는 남자가 그게 뭐냐며 놀림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학창 시절에는 매우 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생겨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장애, 피부색, 직업, 성별, 가난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남들과 다르다’는 거부감을 갖게 되는 순간 이미 혐오는 시작됩니다. 즉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 보다 많은 사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홈페이지(<http://www.kpil.org/>)에 올라와 있는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7 혐오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해에 걸쳐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나에겐 사랑이 공포였다. 너는 게이이다. 게이는 지옥에 간다’는 왜곡된 개념의 말만 듣고 자라서 동성애자인 나 자신을 증오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투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

위 사진은 2010년 커밍아웃 했던 가수 리키 마틴과 반기문 UN 총장의 사진입니다. 리키 마틴은 2012년 11월 세계 인권 선언일에 UN에서 위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 영상주소 : [http://www.youtube.com/watch?v=Yt\\_BuBZQb2s](http://www.youtube.com/watch?v=Yt_BuBZQb2s)

리키 마틴이 공포를 느꼈다고 한 것처럼 호모포비아들에 의해 성소수자들은 아래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 너는 없어져야 할 사람이야. - 제거
- 너희 끼리 지내, 눈에 띄지마 - 추방과 분리

- 참아는 줄게. 하지만 나하곤 상관없이 지내자. - 관용
- 더러워, 부도덕한 짓이야. 나하고 달라, 싫어 - 낙인
- 에이즈에 걸린대, 정신질환이래 - 편견과 증오
- 고쳐야 할 병이야, 기도해라 - 존재에 대한 불인정
- 난 관심 없어. 그러면 된 거 아냐? - 무시, 무관심
-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럴 거면 네 멋대로 해라 - 버려짐
- 이렇게 잘못 살면 나중에 쓸모없는 인간된다 -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느낌

위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흔히 듣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자신이 지닌 어떤 특징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된다면, 누군가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매우 증오한다면? 이런 상황들은 누구나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때문에 우울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자살 시도, 자해, 가출 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호모포비즘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지금도 이런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옆에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 8 혐오 넘어서기, 존중하기가 왜 필요할까?

- 나의 자존감을 찾고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
- 정상/비정상의 색안경을 벗고 사람을 보는 것
-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 N명의 사람들에게겐 N가지 젠더가 있다는 것
- 스스로 탐색, 인식, 결정하는 과정
-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과정
-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배우는 과정
-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길 강요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
- 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성정체성은 엄밀히 따지면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은 명백히 인간의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듯이 지금도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정상적인 인간의 기준’이란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상’의 기준은 뭘까요? 인간이 되기 위한 자격이 있을까요? 설령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혐오를 넘어서서 존중한다는 것은 정체성에 국한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탐색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같을 수 없고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 과정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추어 강제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면 어떨까?”

혐오를 넘어 존중으로 가는 길은,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열리지 않을까요?

**인권교육 프로그램 1. 우리 반에서 금지<sup>3)</sup>**

〈주제〉

1. 무엇이 차별인가? - 평소에 자신이 쓰던 말이 어떻게 차별과 이어지는지  
생각하기
2. 어쩌서 차별적인 언어를 쓰는가? -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이것이 욕설이나  
비하가 되는 맥락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기

● 대상인원

- 개인 또는 모둠별 참여 프로그램, 30여명 내외

● 준비물

- 필기구, 포스트잇

● 진행방법

-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이러한 말을 적도록 한다. (성별, 인종, 장애, 신체, 생김새 등으로) 남을 놀리는 말, 들어서 기분 나빴던 말, 별명, 혹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했던 말 등.
- 학생들이 말한 모든 단어를 칠판이나 보드에 붙인 다음 단어들을 인종, 문화, 성차, 종교 등으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각 단어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로 사용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떤 때 쓰는지 얘기해 본다.

예) 원래 병신은 누구를 가리키지? : 일반적으로는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사전적으로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친한 친구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사용.

3) 김경호,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권 2호, 2009년 24쪽에서 발췌, 교육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누군가를 비아냥거리면서 애 장애인이에요? 애 게이예요? 하는 것은 장애인, 게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그 상황에서는 분명한 차별임을 상기시켜준다.
- 범주화한 단어들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학생들이 남을 놀리거나 모욕하는 별명들이 어떤 맥락에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는지 이끌어내고, 이렇게 다른 대상을 비하하는 것이 어째서 안 좋은지 설명한다.
- 앞서 범주화한 말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것임을 이끌어 내도록 진행하고, 앞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 ● 정리

- 진행하면서 나온 단어들이 어떤 편견과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토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차별적인 단어 속에서 하나만 골라서 어떤 맥락에서 차별이 되는지 이야기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들은 교실 내에서 쓰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2. 나에게 소중한 다섯 가지<sup>4)</sup>**

〈주제〉

1. 다르면 차별받아야 할까? - 성적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한지 생각하기
2. 아웃팅? - 아웃팅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같이 공유하기
3. 성소수자라서 잃을 수 있는 것 -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차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하기
4. 호모포비즘은 내 생각? 남의 생각? - 진행하면서 든 생각이 자신의 판단인지 남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생각해보기

● 대상인원

- 개인 또는 모듈별 참여 프로그램, 30여명 내외

● 준비물

- 종이, 필기구

● 진행방법

- 총 5단계에 걸쳐 시나리오를 읽어준 뒤 참여자들이 종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30초 정도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참여자들에게 5장의 종이를 나누어 준 뒤, 1부터 5까지 숫자를 새기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다음의 내용을 종이에 적도록 한다.
  - 1번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
  - 2번 : 자신이 자주 가는 장소

4) 김경호,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권 2호, 2009년 24쪽에서 발췌, 교육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 3번 :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이름
- 4번 : 가장 좋아하는 소유물
- 5번 : 자신의 꿈

- 모든 종이에 내용을 적었으면 다음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읽어준다. 그리고 다음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종이를 찢도록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찢지 않아도 된다. 사전에 이 종이의 용도를 알 수 없도록 소중한 것을 잘 적을 수 있도록 한다.

- 첫째, ‘네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다가와서 네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너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친구에게 소문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네 친구는 너에게 더 이상 함께 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학교에 네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퍼뜨린다. 학교 있는 어느 누구도 너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는 종이에 적은 네 친구가 다른 친구들처럼 너와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종이를 찢고, 그렇지 않다면 찢지 않는다.’

- 둘째, ‘너는 네가 좋아하는 단골 장소로 갔는데 거기서 아까의 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너에게 더 이상 그곳에 와서 놀지 말라고 말한다. 너는 그 자리를 떠난다. 앞으로는 이 장소에 더 올 수 없을 것 같다면 장소가 적힌 종이를 찢고, 그렇지 않다면 찢지 않는다.’

- 셋째, ‘너는 매우 화가 나서 집으로 갔고 너의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이 거기에 있다. 너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커밍아웃 하면서 화난 이유를 이야기한다.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은 네 이야기를 듣더니 제 정신이 아니라고 폭언을 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네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가족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한다. 너의 부모는 너를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너의 가장 친한 가족 구성원과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 생각하면 종이를 찢고, 그렇지 않다면 찢지 않는다.’

- 넷째, ‘3번 종이를 찢은 경우 너는 집을 나오자마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소유물을 가져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네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지금 막 너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소유물을 잃었다. 네가 좋아하는 소유물을 적은 4번 종이를 찢어서 구

겨버려라.’

\* 좋아하는 소유물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종이를 찢지 않을 수도 있다.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4번 종이를 자연스럽게 찢게 된다는 걸 설명한다. 종이의 질문을 자신이 소속된 다른 동아리 같은 공동체, 또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 다섯째,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은 뒤에 너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본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거주할 곳도 없고 당장 학교도 가기 힘들어진 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의 길도 캄캄하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 요청해도 지금과 같은 거부만 받을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는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자신의 꿈을 적은 5번 종이를 찢어서 구겨버려라.’

\* 마지막에 가면 모든 종이를 다 찢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도 찢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종이를 찢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신만의 생각인지 혹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권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 ● 정리

이 실습을 하면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는가? 종이를 찢었을 때/찢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상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가장 힘들었던 상실의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가? 각자가 이 종이를 왜 찢었는지/찢지 않았는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며 더불어서 아웃팅이 큰 폭력과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전부 끝낸 후 각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꺼리들을 던져주는 것도 좋다. 5번 종이를 찢게 되는 경우, 정말 청소년은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자립을 할 수 없고 꿈을 이룰 수 없는지, 왜 청소년은 자립을 하기가 힘든지,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등이 있을 것이다.

## 읽을거리

## 1. 매일매일 이성애자가 가지는 특권

이 글은 Peggy McIntosh의 백인 특권을 Earlham 대학 이성애자 학생들이 바꿔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일부일 뿐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로 정체화한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이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통...

- 내 룸메이트나 같은 반 학생들, 같은 복도에 사는 사람들이 내 성적지향에 대해서 불편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 잡지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내 성적 지향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 내 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농담을 한다거나 그냥 내 연예관계를 이야기한다거나), 내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비난받지는 않을 것이다.
- 가족, 친구들이 내 성적지향을 알게 되면 경제적,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 내 성적지향을 욕으로 쓰는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다. (호모새끼 등)
- 내 성적지향 때문에 학대를 받았거나, 비뚤어졌거나,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다고 의심받지 않는다.
- 내 성적지향 때문에 대부분의 모임, 수업, 대화에서 내가 배제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격받거나, 고립되거나, 무시되거나, 소수이거나, 거리감을 느끼거나, 편견을 들을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이성애자를 대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 나와 같은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될 것이란 걸 확신한다.
- 내 성적지향을 선택한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
- 내 성적지향을 왜 말하는지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
- 내 성적지향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미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한다.
- 내 성적지향은 감추어진 적이 없다.
-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내 성적지향을 바꾸라고 설득한 적이 없다.

- 내 성적지향을 지킬 필요가 없다.
- 내 성적지향 때문에 나를 쫓아낼 종교를 찾기 어렵다.
- 내 성적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을만한 상담사나 의사를 찾을 수 있다.
- 내 성적지향에 맞는 다수의 성교육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내 성적지향 때문에 사람들이 날 괴롭힐 일은 없다.
- 내 성적지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성적지향 때문에 의심받지 않는다.
- 사람들이 나를 성적지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 내가 법이나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성적지향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 하루, 일주일, 일 년이 힘들어 안 좋은 일들을 살펴볼 때, 성적지향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 영화를 보기 위해 대여하거나 극장에 가거나 다운받거나 할 때, 내 성적지향이 드러난 영화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
- 내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 대학교 구성원, 교과과정에 찾기 어렵지 않다.
-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하지 않는다.
- 내 성적지향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 룸메이트에게 내 성적지향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이미 이성애자라고 생각한다.
- 성소수자들의 문화나 단어들을 몰라도 된다. 그래도 아무런 잘못도 불편도 없다.
- 이성애자라고 불리지 않고 몇 달을 지낼 수 있다.
- 내 성적지향으로 묶이지 않는다.
- 내 개인적인 특징들이 이성애자 전체의 특징이라고 오해되지 않는다.
- 일상생활에서 나와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체로 내 성적지향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섹스는 이성간의 섹스를 뜻하고 가족은 남자 여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뜻한다.
- 내 성적지향 때문에 내가 섹스경험이 많다고 (혹은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 이성에게 진하게 키스하건 가볍게 뽀뽀만 하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 내 성적지향을 드러내도 직업을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읽을거리

## 2. 가짜 게이 행세?



미국 청년이 거짓으로 ‘커밍아웃(coming-out ·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하고서 1년간 게이로 산 경험을 책으로 냈다. 그는 커밍아웃으로 친구의 95%를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 테네시주(州)에 사는 티모시 쿠렉(Timothy Kurek)은 12일 미국 ABC방송에 나와 1년간의 ‘게이 생활’에 대한 감상을 털어냈다. 쿠렉은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해야 하며 사랑하는 친구 중 게이인 친구가 있다면 ‘넌 혐오스러워.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해’라고 말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배운다”면서 “나도 게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쿠렉은 4년 전 레즈비언인 친척에게서 그가 커밍아웃했을 때 가족들이 그를 어떤 식으로 거부했는지 듣게 되면서 게이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친구들과 가족 모두에게 커밍아웃했다”면서 “게이 딱지가 붙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쿠렉은 “게이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고, 게이 바에서 놀고, 게이들의 소프트볼 게임에 참가하면서도 내면에는 이성애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간직했다”고 했다. 쿠렉이 게이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모와 친한 친구 한 명, 애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 쿠렉

에게 고용된 게이 친구뿐이었다. 그는 커밍아웃한 뒤 친구 중 95%가 그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쿠렉의 커밍아웃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어머니였다. 쿠렉은 “몰래 어머니의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게이인 아들을 갖느니 의사로부터 말기 암 선고를 받는 게 낫다’라고 써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게이 사회의 편에 서주기 위해 보수적인 기독교도의 길을 뿌리쳤다.

쿠렉의 경험은 ‘다락방 안의 십자가(The cross in the closet)’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다. 쿠렉은 수익금의 일부는 집 없는 젊은 동성애자들이 머무는 기관에 기부할 계획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1914.html?outlink=faceboo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1914.html?outlink=facebook)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Ⅲ 성소수자와 인권 톺아보기 2

다양한 가족 구성과 동성결혼





**<교육목표>**

1. 남녀 간의 결혼 및 혈연관계로만 규정되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 이해하기
2. 동성 가족에 대해 흔히 가지는 편견을 바로잡고 다른 가족과 다름없이 존중하기
3. 가족이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1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가족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보통은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리겠죠?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출산했을 것이고, 모두가 한 집에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밥을 차려줍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숙제를 하고, 누군가 아플 때 간호를 하는 것도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아마 모두가 가족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가족 중에서 어떤 위

치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가족에 대해 수많은 정의를 내렸겠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

“같이 살고 경제적으로 협동하고 출산하는 집단”

“영속적인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서 생긴 자녀로 구성된 생활공동체”

“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고, 법적 유대 및 경제적·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

워낙 가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당연합니다. 출산과 육아 외에도,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어려울 때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이유로도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

“나는 내가 아플 때 돌보아주고 내가 슬플 때 토닥여주는 가족을 바라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만드는 것이 가족이지.”

“흠, 그럼 결혼하지 않고 싱글맘이 아이를 혼자 낳아 함께 살면 가족이 아니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잖아?”

“그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살기로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아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말이야!”

서로 자신에게 가족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가족 형태에 꼭 맞지 않는 가족들도 흔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다양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음도 알게 되지요. 결혼, 출산, 육아라는 공식을 벗어날 때 다양한 가족을 보게 됩니다.

## 2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다양한 가족 !!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일 뿐이지!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위의 사진들은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할아버지도 있고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꾸린 가족도 있네요. 엄마와 딸만 사는 집은 이상해 보이나요? 그럼 엄마 둘과 딸이 사는 집은 어때요? 혹은 지적장애인 5명이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는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런 가족들은 어떤지 가족 같지 않거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딘가 모자라거나 잘못되어 보인다면 아래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에 나온 가족들이 내가 지금껏 생각해온 ‘정상적인 가족’기준에 못 미치는 점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네? 엄마만 있는 집에는 아빠가 있어야 한대구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외국인 엄마는 한국말을 잘 못할 거라구요? 동성애자 엄마나 아빠는 아이에게 잘못된 걸 가르칠 것 같대구요? 장애인들끼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니 보통 가족보다 못 하대구요?”

이제는 시각을 바꾸어서 단지 이 사진에 나온 가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가족’과 다른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공통점도 있고요, 더 좋은 점도 찾을 수 있답니다. 엄마가 외국인인 가족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도 있겠지요. 시설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립생활을 위해 마련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인간다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마만 있던, 엄마아빠가 다 있던, 엄마만 두 명 있던 간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순서를 매길 수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플 때 누가 나를 간호해 주냐구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나구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지금껏 우리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돌보아줄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신문과 TV뉴스에서는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 가난과 고독 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책임질 재간이 없던 아버지가 부양가족이 없어야 지원을 해주는 제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보면 가족이 없는 삶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이 없는 안전망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책임질 부분을 모두 가족이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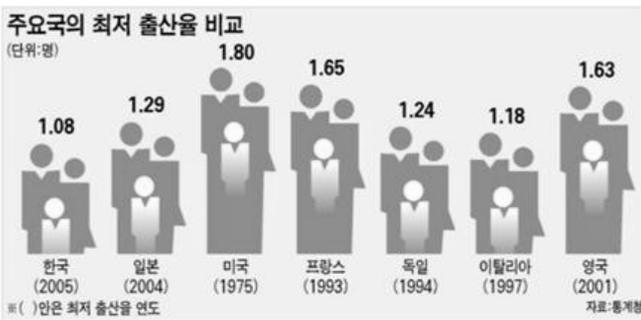
가족이 우리들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가족도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하기도 하고, 아플 때는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지요.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나라가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거나 지적 장애인은 가족을 이루고 자립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본인의 필요에 맞게 배울 수 있어야 해요. 모두가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회 복지 또는 사회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은 서로 다양하고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도 다르지요. 하지만 다른 것일 뿐 그것이 틀린 것이나 열등한 것은 아니에요. 복지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족이든 공동체든 저마다 원하는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든 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할 거예요.

### 3 동성결혼이 왜 안된다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명 잉태는 소수자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사회가 무너질 거라구?

우리가 위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교과서에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배웠는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동성결혼과 이를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인터뷰를 했지요. 그 소식이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날아들어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갔는데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금방이라도 동성애자가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 한겨레신문에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기고한 우남식 목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명 잉태는 소수자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어요.

정말 동성결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까요? 만약 남녀가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에서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만 정한다면 동성결혼은 마치 가족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남성이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혼 부부도 아이를 키울 수 있지요. 한국에서는 낯선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맺어진 가족들도 법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생명잉태’나 ‘가족위기’ 등을 빌미로 다른 형태의 가족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소수자 권리 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더 문제겠지요?

그렇다면 동성혼을 허용한다고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이 주장은 간단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보다 동성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에서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여성의 사회진출을 출산과 육아가 가로막지 않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 등이 오히려 출산율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보다 자세한 주장 글이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 4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다양한 가족!!



“나는 두 여성에게 자랐습니다.  
재키와 어머니는 15년간 파트너였고  
결혼은 2009년에 하셨습니다.”



34년 7개월 19일 10시간째  
함께하고 있는 노년의 레즈비언 커플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격도 없는 이등시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사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면 아이를 못 낳거나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볼게요. 한 청년이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2009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볼까요?

### [영상보기]

아이오와주 법원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해 연설하는 동성혼 부부의 자녀  
<http://youtu.be/K6SINZAxgZo>

### [연설문 중 일부]

“나는 두 여성에게 자랐습니다. 재키와 어머니는 15년간 파트너였고 결혼은 2009년에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아이오와 가족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학교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늘 같은 문제로 귀결되더라구요. 게이들이 애를 키울 수나 있긴 하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대부분 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손을 들고 말해요.”

“사실 난 레즈비언 커플 아래 자랐고 난 꽤 잘하고 있어.”

“정부가 ‘당신들도 결혼했으니 축하합니다’라고 말해줘야 가족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걸까요? 가족의 의미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투표하는 것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나 가족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우리를 보고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격도 없는 이등시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19년 동안 아무도 제 부모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들의 성적지향이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며 단단해져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과 이 청년이 생각하는 가족은 많이 다른가요?

동성결혼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캐나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며, 프랑스 등 22개국이 동성커플에게도 이성애자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결합이라는 것을 보장해요. 어떤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보장하거나, 동성간 사실혼 관계 등을 인정하는 국가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지요. 미국에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한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성결혼을 찬성해요. 결혼이 꼭 이성의 결합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결합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꼭 낮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들을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본 결과, 이성애자 부부 자녀들보다 동성애자 부부의 자녀들이 더 불행하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대요. 오히려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혐오와 편견의 벽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차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하지요. 동성애자 부부들은 법이 이들을 허용하지 않던 시절부터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기도 했고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 5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다양한 가족!!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제공하는 권리들

- 보험에 대한 권리
- 상속하고 상속받을 권리
-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및 사회보장의 권리
- 가족으로 묶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혜택
- 거주할 권리
-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적 혜택
- 이혼 시 부양책임
- 파트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 임대차 계약권을 행사할 권리
- 자녀를 위한 사회적 혜택
- 배우자의 병원을 방문할 권리
- 배우자 사망 시 시신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
- 부모로서의 권리
- 이혼할 권리
- 재산분배에서의 의무와 권리
- 아동양육과 부양에 관한 의무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과 동등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에는 여기 나열된 것처럼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프랑스에서 동성커플의 권리가 인정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함께 회사에서 사옥(집)을 제공받아 살던 동성애자 커플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둘은 부부와 다름없이 계속 함께 살아왔지만 남은 한 명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사망했으니 곧 집을 떠나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성애자 부부들에게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도 남은 유가족이 계속 회사 사옥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죠. 이처럼 결혼은 많은 사회적 권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다양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 복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동성커플에게도 바로 동등한 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 6 가족과 나의 생애, 가족은 무엇을 재생산할까?



원을 이루고 있는 사진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와 있나요? 공부하는 학생인가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왔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와 아빠도 어느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학교를 들어가고 취업을 한 후 결혼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여러분도 비슷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다수가 '엄마와 아빠가 이룬'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누구나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 **남녀의 역할을 배워야** 하고, 부모로부터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받고**,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하니 가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오지 않았나

요? 우리는 ‘당연하게’ 엄마와 아빠처럼 결혼하고, 가족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가족이 그려놓은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고 어딘가 부족한 채로 살게 된다는 생각도 했지요. 그럼 동성애자는 어떨까요? 무사히 취직했지만 이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면 그는 어떤 기분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지요. “결혼하고 자식도 키워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를 바 없이 동등한 존재랍니다.

## 7 내 가족이 성소수자라면?



그런 가족 안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뒤흔드는 존재

“중3 여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와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제 아이와 상대방 아이가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까지 약속하는 걸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행동들은 아니더라고요. 제 딸아이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아이를 잊겠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려운가 봐요. 매일 울고 말도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도 같은 반 이라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그것이 쉽지가 않나 봅니다.”

동성애자가 가족을 이루는 것 말고도 가족 안에 이미 동성애자 가족 구성원이 있지요. 그 또한 당연한 거예요.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게이 아들이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에게 형제나 자매가 커밍아웃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요? 동성애자에게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게 될까봐,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선불리 커밍아웃할 수 없지요. 하지만 누구나 가족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감싸주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해요.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살하지 않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집단이 가족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협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가족이라는 사실은 꼭 잊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이나 아들의 커밍아웃에 당황하고 이를 거부하는 엄마와 아빠가 있겠지요? 여기 쓰여 있는 상담 사례처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보세요.

## ● 교육을 마치며

우리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긴 가족만 이룰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벌써부터 우울해지겠죠. 하지만 다양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면 저마다에게 좋은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인권교육 프로그램**

**1. 다양함과 평등함이 숨 쉬는 별별 가족 상상하기**

〈교육목표〉

1.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기
2. 동성혼 가족도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 약 25~30명 정도까지 진행가능 / 5~6명이 5모둠으로 나누어 진행

● **준비물**

- 전지, 필기구, 풀
- 69쪽과 71쪽에 실린 그림을 함께 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자료의 이미지의 경우 다양한 가족을 표현하는 다른 사진을 찾아서 사용해도 좋다.
- 피부색, 성별,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사람의 사진을 잡지에서 잘라서 올려놓는다. 다양할수록 좋으며 동물 사진도 포함하면 좋다.

● **진행방법 (소요시간 60분)**

1. 69쪽에 실린 이미지를 보면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보통 엄마, 아빠, 아이들로 이루어진 이성애 정상가족 이미지가 제일 많을 것이다.
2. 71쪽에 실린 이미지에 나타난 가족들을 한 장씩 보면서 인물들이 어떤 가족 관계에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서로 피부색이 다른 남성 두 명과 아이 한 명이 있을 때, 실제로는 남성 동성애자 부부와 그의 입양자녀이지만, 사람들은 아빠와 삼촌 그리고 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각 모둠마다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 사진들을 집어가도록 한다. 모둠마다 최소 4명 이상의 사진을 가져가면 좋다. 모둠에서는 종이 위에 사람 사진을 배치하며 자유롭게 가족을 만들어본다. 한 가족으로 해도 좋고 여러 가족으로 해도 좋다. 예를 들어 아이들만 있는 가족도 생길 수 있고, 동물과 같이 사는 가족, 1인 가구가 여럿 모여 사는 가족 등등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다.
4. 모둠마다 결과물을 들고 나와서 자신이 만든 가족 속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이렇게 구성해 보았는지를 발표해본다.

### ● 정리

이성애/동성애 가족의 구획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당연하게도 가족 형태 간에는 다양한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이성애 가족도 여러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핍되거나 잘못된 가족이라는 점은 편견에 불과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가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 〈가족〉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활용할만한 매체와 프로그램

### 영화와 책으로 만나는 ‘가족 속의 동성애자’

가족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동성애자라면? 내가 동성애자라면? 가족이 동성애자인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동성애를 다루는 동화나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의 뒷부분을 다시 써보거나 주인공의 친구가 되어서 편지를 써본다면 동성애자인 친구와 한결 가까워지고 편견도 해소될 수 있겠지요?  
소설이나 영화는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편을 감상한 후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습니다.

#### 1. 동화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 1) 책소개



글 : 저스틴 리처드슨, 피터 파넬  
그림 : 헨리 콜  
옮김 : 강이경  
출판사 : 담푸스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실제 있었던 아빠가 둘인 펭귄가족을 소재로, 혈연을 넘어 형성된 새로운 의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수컷 펭귄인 로이와 실로가 사육사의 도움으로 버려진 알을 품어 귀여운 아기 펭귄 탱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와 실로는 탱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아기 펭귄 탱고는 아빠만 둘이 생겼지만, 셋은 너무나 너무나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 책은 동성 가족과 입양이란 비중 있는 주제를 밝고 신중한 그림과 함께 짧은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남과 다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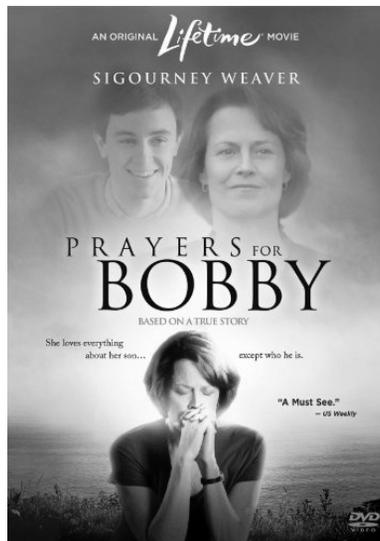
책입니다. 참고로 이 동화는 미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가장 주목할 어린이 책’과 미국사회교사협회와 선정한 ‘사회과 연구도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출판 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쌍수를 들고 보급을 말렸던 책이기도 하지요.

2)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보세요. 혹은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거나 감상 글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 <질문 예시들>

- 로이와 실로를 조련사가 억지로 떼어놓으려 했다면?
- 펭귄들이 로이와 실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살게 굴었다면?
- 로이와 실로가 없었다면 탱고는 어떻게 되었을까?
- 꼭 여자와 남자 펭귄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 2. 영화 <바비를 위한 기도>



### 1) 영화 소개

《바비를 위한 기도》(Prayers for Bobby)는 2009년 TV 영화로서, 2009년 1월 24일 라이

프타임 채널에 방영되었고 2가지 부분에서 에미상 후보로 지정된 작품이다. 이 영화는 바비 그리피스라는 사람의 실화를 담은 크로이 F. 아론즈의 책 ‘바비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바비 그리피스는 동성애자 청소년으로 곧 가족들에게 그의 정체성이 알려진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어머니 메리는 아들의 동성애적 지향을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바비는 죄의식과 가족으로부터의 상처만 떠안고 집을 떠난다. 결국 바비는 어머니에게 게이는 완벽한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 위에서 뛰어 내려 자살한다. 충격과 슬픔에 잠긴 메리는 그제서야 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동성애자 교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 “바비는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메리는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며 동성애자 가족들의 모임에 나가고 TV에도 나가 동성애자의 날을 만들기 위해 연설까지 하게 된다. 이 영화는 가족 속의 동성애자들이 겪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까지 절절하게 호소하는 슬프지만 감동적인 영화다.

2) 영화를 구하려면?

이 영화는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작품으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스트리밍사이트에서 한글 자막과 함께 볼 수 있다. 주요 장면이 담긴 파일에 대한 문의는 동성애자인권연대로 해 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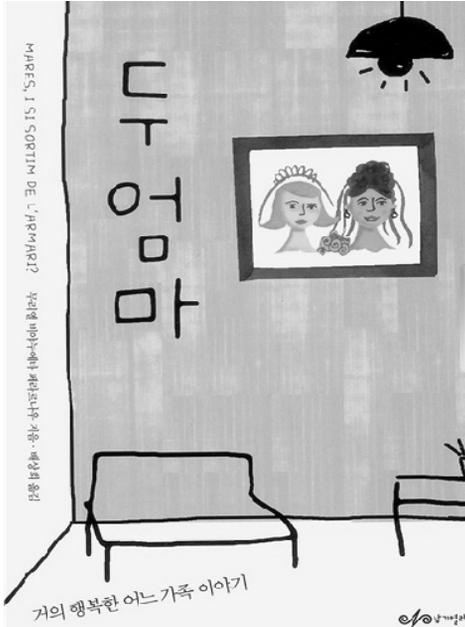
URL: <http://youtu.be/SsQBIXqyQSI>

3) 바비를 위한 기도에 나오는 가족 갈등 장면 재구성하기 - 내가 “ ” 라면?

- 형이 바비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아우팅하는 장면을 보고 참여자들이 형이 되어서 바비에게 어떻게 하는 편이 바비를 지지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이야기해보기
-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바비가 당황하지 않도록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 내가 엄마라면 바비를 계속 치료하려 할까? 어떻게 해야 바비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4) 같은 청소년이었던 바비에게 편지 쓰기도 좋다.

### 3. 소설 <두 엄마>



무리엘 비아누에바 페라르나우 저  
배상희 역  
낭기열라  
2008

“동성 커플의 자녀들은 행복하고 당당한 엄마들과 아빠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엄마들과 아빠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할 뿐이다. ...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이지 동성애자 엄마들과 아빠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 커플의 자녀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 본문 중

레즈비언 커플인 두 엄마, 그리고 입양한 동생들...이 색다른 가족이 거의 행복해지기까지 2005년에 동성 간 결혼과 입양이 합법화된 스페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으로, 레즈비언 커플인 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성애 중심의, 혈연 위주의 가부장적인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동성애자에게도 가족구성권이 주어져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낮은 목소리로 전하는 가족소설.

**읽을거리** ▶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2012년 5월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동성결혼이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그와 대선에서 경쟁하게 될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가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을 앞장서 통과시킨 물몬교인라는 사실은 한층 더 이 쟁점을 첨예하게 만드는 것 같다. 교계의 반발, 흑인과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의 반대 정서, 미국 내 여론 조사 결과 등이 시사각각 보도되고 있다.

오바마가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자마자, 보수 기독교 정서가 강해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미국 남동부 지역 기독교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용소를 지어 레즈비언과 호모들을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끔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를 설치하자”며 동성애혐오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그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오바마의 발언 불과 몇 시간 전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는 뉴욕주에서는 동성결혼법이 통과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법이 뒤집히면서 동성결혼은 다시 불법이 됐다. 이처럼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팽팽하게 대결 중이다.

나는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선언을 환영한다.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평등’한 것이다. 오바마가 진보적이어서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됐을까?

사실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접전이 벌어져 왔다. 멀게는 1970년대 후반 동성애자 교사를 해고하는 브릭스 법안을 막아내는 것부터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공정교육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었다.

‘동등한 권리’는 지금껏 투쟁해 온 성소수자들의 오랜 바람이자 그 성과다. 오바마의 발

언 이후 이뤄진 갤럽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오바마의 결정에 대해 51퍼센트가 동의했으며 반대는 45퍼센트에 그쳤다. 오바마의 발언은 지금 미국 사회 여론이 동성애를 존중하고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 ✓ 실질적 평등

동성결혼은 국가가 ‘이성애 가족’에게만 주는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의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남녀 부부에게만 인정되던 재산공유와 분할권, 양육권, 의료친권,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혜택 등 사회적 분배 차원의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발뺌을 할 모양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법 ‘혼인보호법(DOMA)’ 폐지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DOMA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같은 연금, 세제상의 법적 이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동성 커플은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1천 1백여 가지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게 된다. DOMA 폐지는 처음 제정된 1996년 이후로 성소수자들이 줄곧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제대로 양육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팩스(PACS, 시민연대계약) 입법 당시에 반대자들이 내건 구호인 “내 조카를 아동성애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말은 성소수자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이성애자 부부 자녀들보다 동성애자 부부의 자녀들이 더 불행하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혐오와 편견의 벽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진정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산업인력이 감소해 결국 사회가 망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출산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이다. 동성결혼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네덜란드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을 보라.

동성결혼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캐나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며, 프랑스 등 22개국이 동성 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시민결합을 보장한다. 일부 주에서 동성결혼을 보장하거나, 동성 간 사실혼 관계 등을 인정하는 국가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금방이라도 동성애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얼마 전 <한겨레>에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기고한 우남식 목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적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생명 잉태는 소수자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적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가족 가치가 흔들리는가?

### ✓ ‘비정상’ 낙인

가족제도는 이성애 가족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가치 위에 폐쇄적인 결혼 구조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가족’안에서만 아이를 출산하고 자비를 들여 양육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이 ‘올바르고 전통적인 가치’라고 믿어왔다. 동시에 가족제도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고정된 남녀 성역할, 순결주의, 각종 성차별적인 관념들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동성결혼은 이러한 관념에 일정 부분 도전하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이것을 기를 쓰고 반대한다.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정상’ 낙인은 ‘이성애 정상가족’을 더욱 견고히 유지하고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데도 활용된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 온 가족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무엇보다 해악적인 것은 편견과 차별이 억압받는 사람들 간의 연대를 해친다는 것이다. 오바마 지지층으로 인식되는 흑인과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정서를 가지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들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흑인과 성소수자가 대립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가족제도가 지긋지긋하고 싫다. 내 동성 파트너의 투병 기간 동안 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자였던 나는 단 한번도 수술동의서나 치료 결정에 서명할 수 없었다. 나의 파트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 절차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된 다음에야, 다른 나라의 동성 커플들에겐 ‘배우자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할 권리만이 아니다. 나는 성소수자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경제, 사회적 권리를 원한다. 성소수자의 이 모든 권리들은 정말로 ‘가족제도’에 도전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견고한 가족제도 때문에 배제되고 소외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기를 똑같이 바란다. 그것은 이 사회가 야비하게 박탈한 권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IV. 변화와 실천





〈변화와 실천〉은 인권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참여 전후의 생각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얻게 된 정보가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은 교육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들을 만듭니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Safe Space(안전한 공간) 프로젝트와 It gets better(더 나아질 거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

학급규칙과 같은 모두의 약속을 정해도 좋고 자신만의 실천과제를 책갈피 형태로 만들어 소지할 수 있게 해도 좋습니다. 학급규칙과 책갈피를 만들 때 동성애자 인권의 상징인 레인보우 6색(빨, 주, 노, 초, 파, 보)을 함께 표현한다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 레인보우 (Rainbow)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에서 남색을 뺀 6가지색으로 이루어진 레인보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동성애자의 상징입니다.

레인보우는 197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행사에 쓰기 위해 화가인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가 만든 8색 깃발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때의 8가지 색깔은 분홍,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였고 베이커가 직접 염색하고 봉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깃발이 좋은 반응을 얻자, 베이커는 ‘파라마운트 깃발 회사’에 대량 제작을 의뢰하게 되는데 베이커가 직접 만들었던 분홍색(Hot pink)이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8색이 불가능하게 되어 7가지 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커밍아웃한 시의원이었던 하비 밀크(Harvy Milk)가 호모포비아에 의해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1979년 동성애자 퍼레이드 위원회는 자신들의 세력과 견고함을 천명하기 위해서 베이커의 깃발을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퍼레이드 때 길 양쪽 편으로 세 가지 색으로 나누어 달기 위해 비슷한 톤이 중복되는 남색을 제외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6가지 색 깃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각 색깔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빨강 : life (삶) / 주황 : healing (치유) / 노랑 : sun (태양) /  
초록 : nature (자연) / 파랑 : art (예술) / 보라 : spirit (영혼)

출처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http://www.kscrc.org>) 성적소수자 사전 참고

# 1 변화와 실천 : Safe Space Project



당신의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만한 장소였나요?

학교에서 Day of Silence (침묵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GLSEN(Gay Lesbian Straight Education Network)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인지 물음을 제기합니다. 침묵의 날 캠페인은 1996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학생 150명이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997년 100여개의 대학들이 동참했고 1998년부터는 100여개의 고등학교가 동참하였으며 2001년부터 GLSEN이 주최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4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침묵을 선언하고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침묵을 깰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적힌 내용물을 나눠줍니다. 또 “침묵을 깨는” 이벤트를 열어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원하는 바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진행을 하는

데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간소하게 하거나,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에 친화적인 교사에게 수업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부탁하거나, 학교신문에 기사를 내거나, 리본 등을 이용하거나,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등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언제든지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소수자 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알리는 스티커와 포스터들도 같이 제공되는데, Safe Space (안전한 공간)는 바로 스티커와 포스터 내용입니다.

GLSEN은 침묵의 날 캠페인이 여전히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조사결과들이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안전하게 자라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2/3가 자신의 성적체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의 4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일반적 성규범에 어긋나는 그들의 성 행태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85%는 언어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40%는 그들의 성적체성 때문에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64%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언어폭력을 겪고 있고, 거의 30%의 청소년들은 그로 인해 신체적으로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따른 괴롭힘은 학생들의 결석과 낮은 학업성적, 자존감 상실, 그리고 많은 사례들에서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처 : <http://safespace.glsen.org/campaign.cfm>

## 2 변화와 실천 : It gets better



It gets better(더 나아질 거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격려메시지가 담긴 유튜브 영상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매일 집단 따돌림의 두려움과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숨기고 사는 10대 성소수자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동성애자라는 성적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조언자나 성인들이 없다면, 10대 성소수자들은 장차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들에서 게이, 레즈비언 청소년들이 단순히 그들이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고문과 같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2010년 9월,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댄 사베지Dan Savage는 그의 파트너인 테리 밀러 Terry Miller와 함께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을 하는 많

은 학생들을 위해 곳곳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그래, 곧 나아질꺼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유튜브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5만 개의 영상들이 5천만번 넘게 조회되었습니다. 미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물론,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의원 낸시 펠로시, 아담 램버트, 앤 해서웨이, 콜린 페럴, 미국드라마 ‘글리’의 매튜 모리슨, 의류회사 ‘갭’과 구글, 페이스북의 직원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직원, 브로드웨이 커뮤니티 등을 비롯한 유명스타들과 기관들, 활동가, 정치인, 메스컴의 인기스타까지 영상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itgetsbett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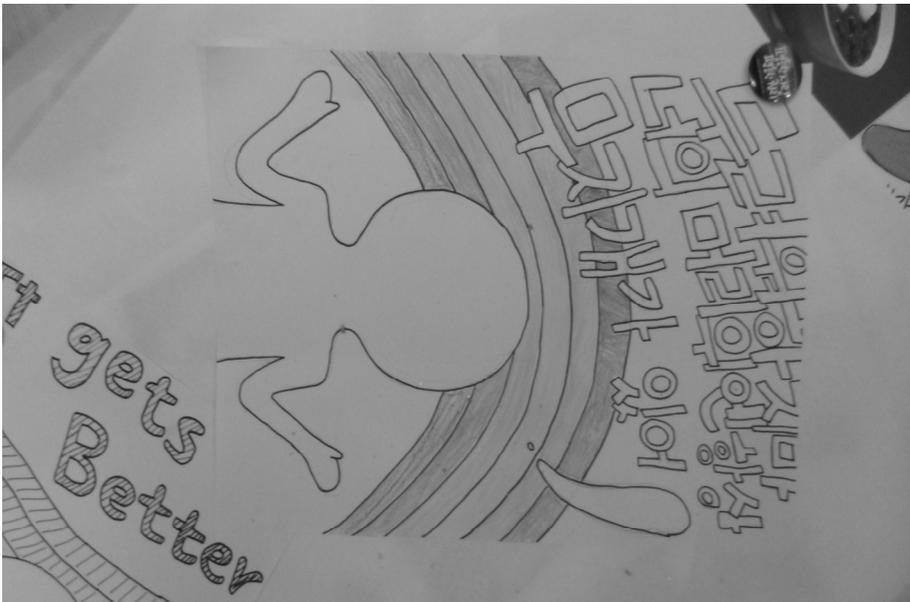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www.youtube.com/watch?v=FACP4v32jNw>

브로드웨이 커뮤니티

<http://www.youtube.com/watch?v=yBypXwxESvo&feature=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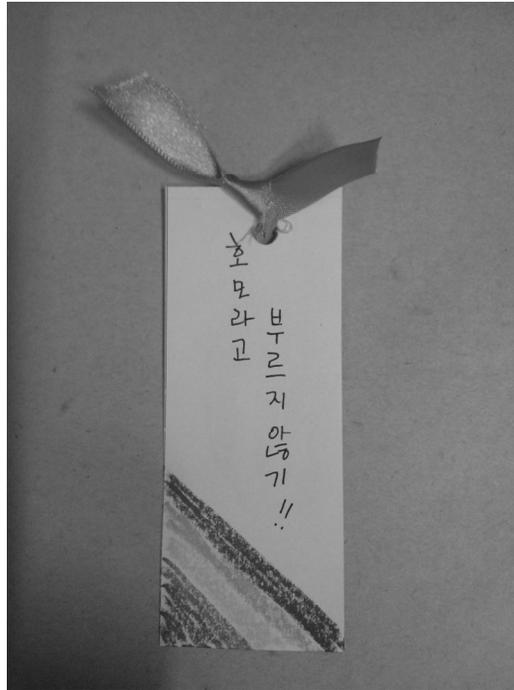
※ <http://www.youtube.com> 유튜브에서 itgetsbetter 검색어를 입력하면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변화와 실천 : It gets better



-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영상 메시지(유튜브 영상)를 제작할 수 없다면 교육 참여자들과 It gets better (더 나아질 거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사진으로 남겨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 우선 모듈을 나누고 전지와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모듈별로 나눠줍니다.
- 교육진행자는 It gets better 프로젝트의 의미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차별에 대해 소개하고 여전히 성적체성을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모듈별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 모듈별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전지에 그림, 글씨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모듈별 메시지를 디자인합니다.
- 모듈별로 디자인된 메시지는 사진으로 남겨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널리 활용하도록 합니다.

## 4 변화와 실천 : 무지개 책갈피 만들기



준비물 : 두꺼운 종이(가로4cm\* 세로12cm) /크레파스, 색연필 /펀치 /리본 / 코팅용지

- 모듬을 나누고,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은 가로 4cm×세로 12cm 정도의 두꺼운 종이 등을 모듬별로 나눠줍니다.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기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계획을 고민합니다.  
ex. 호모라고 부르지 않기 / 커밍아웃 지지하기 / 괴롭힘을 당할 때 함께 대응하기 등
- 종이에 나만의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동성애자 인권의 상징인 레인보우 6색을 이용해 책갈피를 디자인합니다.
- 펀치를 뚫고 리본을 답니다. 필요하다면 코팅용지를 사용합니다.
- 완성된 책갈피에 적힌 실천계획, 디자인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 V. 읽을거리





## 1. 열린 상담을 위한 10가지 태도, 이렇게 상담하세요!

### 1. 내 고민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후 마주 앉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듯 학생이 스스로 교사에게 성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사가 먼저 동성애 문제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편안하게 상담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담당 학생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스스로 동성애에 대해 편견이 없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하며 돕고자 했으나, 이미 집과 학교에 성정체성이 알려진 상황에서 학생을 접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교 바깥에서 여러 번 만나면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벽을 허물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편견 없이 학생을 대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성정체성 문제로 인해 학교와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선생님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 또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쉽지 않으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 2. ‘문제 학생 지도’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문제는 종종 비행청소년의 일탈행위나 청소년답지 않은 성 문제 등으로 불거져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동성애 자체가 이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이 사회가 청소년에게 금기시 하는 행동을 낙인찍고자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인 성정체성보다는 학생이 저지른 소위 ‘일탈행위’에만 주목해서 다그치거나 처벌하는 등의 학생지도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말과 행동들이 동성애자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지요. 교사 개인의 신념을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게끔 해서는 안 되며, 성정체성 고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교사와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나누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흔히 교사가 위에, 학생이 아래에 있는 권력관계가 나타납니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차별이나 욕설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상담에서도 자칫하면 선생님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은 다른 위치에 있으며,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학생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이도 흔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최대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제를 바라보고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는 식의 상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중요한 이야기로 여기고 공감해주는 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겠죠.

### 4. 청소년기의 성적체성을 ‘교정’하지 말고 함께 ‘탐색’하세요.

많은 교사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가 청소년 시기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은 한 때의 흥역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접근은 학생의 동성에 정체성을 친절하게 ‘교정’해 주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한 개인의 특성이자 교정되거나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로 자신을 교정하려 했겠지요. 이제는 청소년의 성적체성을 함께 탐색하고 모색해 보세요. 세상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앞으로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성애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으며,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로 살아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체성은 차이일 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적체성은 자기 자신의 결정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자세는 청소년이 빨리 성적체성을 결정짓고 싶어 하거나 혹은 강박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벗어나려고만 할 때 모두 도움이 됩니다.

### 5. 상담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추어 진행하세요.

당장 집을 나온 한 고등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닐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집에는 가기 싫은데 생활비를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담하는 개인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상담에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계속적으로 상담에 임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다고 느낄만한 이야기보다는 쉽사리 결정하기 힘든 여러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면 상담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이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행동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 6. 주변과 소속 집단의 영향력과 친밀함, 도움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살핍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큰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 안의 독자적인 룰과 역할 등을 따르기도 하지요. 그것이 당장 선생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단하고 그 곳에 나가지 않도록 권유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그 곳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가 느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을 잘 듣고 이해해 보십시오. 때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희롱이나 폭력 같은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굳이 동성애와 연결시키지 말고 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친밀함을 느끼는 집단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혹은 동성애자 인권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알아두었다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7. 상담 장소가 꼭 학교 상담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상담실은 웬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 학교가 불편한 공간이라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만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를 벗어나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편한 관계로 변화를 줘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잘 가는 신촌의 한 커피숍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소소하지만 꼭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수 있게 만드니까요. 때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진행하는 활동(일일чат집 등)에 관심을 가지거나 청소년 동성애자들끼리 쓰는 은어들을 배워가며(?) 이들의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8.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 관심과 섹스를 존중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성교육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와 관계를 갖는 것은 무조건 막을 일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동성 간의 섹스와 스킨십이 혐오스럽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한 형태이며 기쁨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져야함을 강조해 주십시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면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9.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숨어서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찾곤 하죠. 그러다보면 동성애 포르노와 같은 것을 마치 동성애의 전부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먼저 추천해 줄만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서적 및 영화, 인권단체 등을 소개해 준다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학생의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로부터 올 압력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은 동성애자 개인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 선생님은 학생의 지지자가 되어서 커밍아웃을 하던 하지 않던 그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부모를 설득시키거나 학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한편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지는 아웃팅은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도 선생님은 이 문제를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관련 학생을 보호하고 지지 해주어야 합니다.

## 읽을거리 ▶ 2.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나에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다면?!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체성(Sexual identity)을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coming out of the closet의 줄임말로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자신의 성적체성을 숨기고 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내게 이런 면이 있어...’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개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하게 되면, 그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보다는 황당해 하거나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동성애자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보다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커밍아웃을 한 당사자가 상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태도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 1.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축하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커밍아웃하는 행위 그 자체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 속에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성애자가 되기 싫다던가, 동성애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나 성적 매력을 느꼈는데, 그 대상이 단지 같은 동성이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동성애자로 이 사회를 산다는 것이 비정상이나 변태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것이 현실이고, 당신 또한 동의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성적체성을 찾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긍정했다는 점을 우선 축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2.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동성애자들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특히 친구, 가까운 가족구성원들에게는 더 그런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신의 성적체성을 말함으로써 오게 되는 위험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 오랜 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지 말

아야 할지, 숨길수도 있는데 꼭 해야 하나 등등.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당신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정과 신뢰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커밍아웃한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 3.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신다거나,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상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은 서먹한 분위기를 관계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동성간 성경험에 대해 물어본다면 상대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 4. 최대한 들도록 노력하세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에게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 다른 동성애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과정 모두 커밍아웃의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동성애자로 힘들게 살았던 과정들과 커밍아웃을 통해 얻게 된 변화들에 대해 다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상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데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 5. 예전과 다름없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마치 무슨 큰 죄라도 고백한 양, 상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무척 불안해지기도 하며, 연락을 잘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평소처럼 잘 안하게 되면 혹시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커밍아웃은 사랑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 대한 '재신임' 같은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해 달라는 뜻이 아닌 서로의 전인격에 대해 가림 없이 지내고 싶다는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상대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회라면 동성애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랜 세월 애써 가꿔 온 우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피를 나눈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때로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이 자주 옵니다. 그만큼 커밍아웃이 갖는 본래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상처 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커밍아웃한 당사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쓱 닦고 ‘괜찮아’하며 ‘너에게 큰 힘이 되줄게’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상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도록 해보세요!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힘든 경험은 없었는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한 적은 없는지’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계속한다면 상대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7. ‘날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심이나 ‘날 사랑한 적은 있어?’와 같은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면, 자기를 여성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의 남성성이 도전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남성 동성애자가 같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를 여성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성간에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멋있는 점, 매력 포인트 등이 큰 영향을 미치듯이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이니깐요!

## 8.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커밍아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해서 상대가 받아 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커밍아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의 벽이 높기에 친구, 가족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자신의 선에서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9.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혹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예전과 같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약간의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질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는 반가워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알려주려 할 것입니다.

### 10. 유머감과 친근한 표현은 상대를 편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중요한 순간에 갖는 유머감각은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유머가 자칫 대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게 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내 얘기를 농담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으니 약간의 긴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친근한 표현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계 맺어왔던 태도 그대로 친근감과 유머감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 ■ 〈첫번째 이야기〉

####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문제!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가 아플 때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도 병원가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은 고사하고 자신의 병명이 알려질까 두려워 감히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처럼 취급받는 이들이 바로 HIV/AIDS 감염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이즈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며,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입니다. 감염경로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제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만 잘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하면 공포, 죽음, 동성애, 성문란, 파괴,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붉은 반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포로 와 닿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손만 닿아도 감염인과 식사를 같이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만이 걸리는 질병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동성애자 중에도 감염인이 있고 이성애자 중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견은 너무나 강고해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내부의 순결을 강조하며 감염인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편견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1981년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게이 암’으로 취급하며 혐오스러운 성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동성애자들에게 성적타락이라는 굴레를 씌웠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 사라질 때까지 미국 정부는 진실을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뷰캐넌이라는 사람은 1983년 에이즈를 이렇게 묘

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연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자연은 가공할 만한 천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의 초기 대응은 한국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은 뒷전이고 취약그룹(동성애자, 이주민, 성매매여성 등)들에게 위험의 책임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즈로부터 안전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전파매개행위 금지규정을 두어 감염인들이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2006년 HIV/AIDS감염인의 분포. 감염인의 67%가 사하라 이남지역에 거주한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체성은 HIV감염경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내가 특별한 누구라고 해서 반드시 걸리는 질병이란 없습니다. HIV/에이즈 환자 중 6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는데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만 걸리는 질병이라면 아프리카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집단 거주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즈는 그 사회의 인권수준, 경제사회적 조건을 가늠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는 편견을 깨고 나와 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등 가난한 나라에서 에이즈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치료제는 왜 구하기 힘든지, 미국사회의 12%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신규 감염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왜 한국은 HIV/AIDS 감염인들 중 꽤 많은 수가 기초생활수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에이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 〈두번째 이야기〉

### 남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구? 군형법 92조 동성애 차별조항이 꼭 없어야 하는 이유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남성 간 성행위를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추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수년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해당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2010년 10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위헌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동성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보수교계와 단체들이 주장했던 논리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할 것- 를 바탕으로 최종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국회는 군형법 92조를 대폭 개정하였고 그동안 지적받아온 ‘계간’ 금지조항이 삭제되기는 커녕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에 의한 이성 간의 성적 행동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조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를 죄악시 보게 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는 국가가 통제하고 범죄로 규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남성 군인 두 명이 휴가를 나와 합의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위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강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군형법 92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성 간 합의에 기초한 성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9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군대에서의 동성애 혐오증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진 동성애자들은 끔찍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동성애자 군인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들이 군부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성군기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는 이미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대의 전투능력과 단결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갖 차별을 감내하면서 군 복무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법과제도이며 동성애자들을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보고 있는 국방부 자신입니다.

## ■ 〈세번째 이야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허용법?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법!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회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들을 없애기 위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2002년, 차별금지법은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UN등 국제사회에서의 포괄적인 ‘인권법’의 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법무부에서 꾸준히 준비해 온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안한 법안에서 재계와 종교계의 반대로 인해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사유를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의 보수단체들이 신문 광고,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격,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들 단체가 보여주는 입장은 명백하게 동성애혐오를 담고 있

으며,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군형법은 동성애자 군인을 수감하고 병원에 가두는 등 차별하고, 국가기관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행사에 아직 인권을 말할 수준이 안 되었다며 장소조차 빌려 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현재로서는 차별을 제제하도록 하거나, 국가기관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우리사회에서의 차별사유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라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괴롭힘(성희롱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의 시정명령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실현시키려는 법입니다.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불평등과 호혜의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함이 그 자체 그대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